

김동진 교수 민법 기본심화강의

가장 어렵고 방대한 민법, 입학 전에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를 들었던 이유,
차원이 다른 실강을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민법 정복을 위한 3단계 체득 : **강의수강** → **교재 정독** → **과제물 풀이**
- 단순암기가 아닌 '**先이해 後정리**'를 위한 풍부한 설명
- '**先이해**' 어떤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판례의 결론과 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 '**後정리**' 사례형 쟁점은 쟁점 설명, 답안작성과 직결되는 요령, 밑줄 정리를
선택형 쟁점은 여러 판례들의 정오를 구분짓는 키워드 설명을 통한 정리

■ 강의일정 2019년 **1월 3일(목)** ~ 2월 22일(금), **오전**, 월~금 강의, 총 34 회
오전 9:20 ~ 12:50
※ 설연휴 (2월 4일~6일) 강의 없음

■ 교 재 **민법방편** (저자, 근간, 제공)
- 민법총칙 ~ 채권총론까지는 **가제본(제공)**으로 수업진행
- 이후부터는 민법방편 **정식교재(제공)**로 수업진행 (출간시기는 2월 10일 내외로 예상함)
※ **가제본 책자 및 정식교재 모두 무료 제공**
(진도표는 민법방편 제본책 출간시 따로 배부함)

■ 문의사항 다음카페 「변호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민법공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의특징 [1] 예 습

기본심화강의 단계에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법방편 기준으로 약 35면 내외를 가볍게 1독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2] 강 의 : 선(先) 이해 · 후(後) 정리

1. 이 해

요즘 변호사시험 수험가에는 마음이 급한 수험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단순히 키워드 암기 중심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암기식 강의는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강의를 끝난 이후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술형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득점 포인트는 판례의 문구를 답안에 적시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론 중요 키워드나 문구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기에 앞서 이해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키워드만 밀줄을 긋고 암기를 하면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접하였을 때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쟁점 파악이 되지 않으면 키워드 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기본심화강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어느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및 판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과정은 때로는 지겹고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학년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해두어야 합니다. 2학년에 올라가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차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얇은 책과 키워드 암기 중심의 강의를 찾게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심플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면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꼭 1학년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키워드 암기는 그 뒤에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2. 정 리

- ① 우리는 기본심화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가 끝난 이후의 자습시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일 뿐 공부 그 자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강을 한 후 스스로 1년 동안 민법방편을 최소 2회독은 정독하면서 회독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심화강의 시간에 확실하게 책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 ② **사례형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 설명 → ㉡ 답안 작성의 요령 → ㉢ 밀줄 등을 통한 책 정리」 순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밀줄은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요건 및 판례 문구 중심으로 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손으로 써가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 ③ **선택형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 판례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요령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출제자가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변경을 가하는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샵프로 가필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잘 따라오셔도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 개인 노트를 준비할 것

변호사시험은 「눈」이 아닌 「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개인 노트를 준비하셔서 제가 판서를 하라는 내용은 직접 본인의 「손」으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보면 제 기본강의의 내용을 직접 노트에 쓰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3] 복 습

다양한 형태의 과제물이 각 단원에 맞춰서 제공됩니다.

- ① 망설임 없이 답안지에 적시해야 할 「요건」이나 「판례 문구」들은 이번 기본심화강의 과정에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과제물을 내어드리면 꼭 손으로 쓰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암기를 잘해주신 분과 게을리 한 분들의 차이가 강의 중반 이후부터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 ② 선택형 기출 사례문제는 100% 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이나 변리사시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문제들을 선별하여 진도에 맞춰서 과제물로 내어드릴 것입니다. 강의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독하신 이후에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③ 서술형 사례문제는 리딩 케이스를 선별하여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민법 1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 사례문제는 풀어보는 것은 스트레스만 유발시킬 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도별 사례로 문제를 구성하여 과제물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 ④ 요 약 : 수업이 끝난 후 → 민법방편을 정독하면서 복습을 하고 → 과제물을 풀어본다. 이 3단계만 충실하게 소화하시면 앞으로 민법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4] 맺은 말

로스쿨 입학 전의 선행학습이 로스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본심화강의의 판매량만 보아도 이제는 거의 모든 입학생 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작업한 민법방편으로 기본심화강의를 진행하게 된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강의에 집중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강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수험생이 되신 것입니다. 민법을 입학 전에 잘 잡아놓지 않으면 입학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법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입학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 결론에 근거하여 민법방편 책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5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진 배상